

서울시교육청, 교육취약계층 공연관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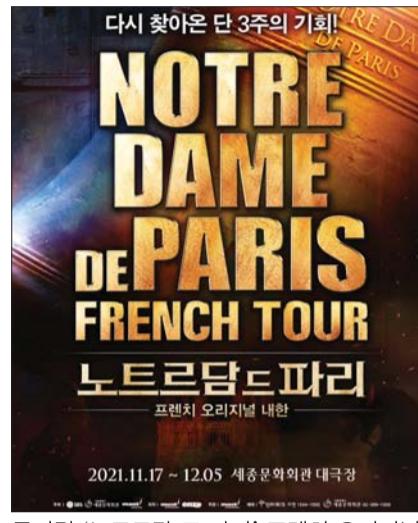
“‘노트르담 드 파리’ 보러 오세요”

‘새꿈프로그램’ 시행 6년차
매년 6000명 문화체험 지원
조희연 “학생 감수성 함양 도움”

서울시교육청은 ‘새꿈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 교육취약계층 초중고교 학생, 학부모에게 세종문화회관의 문화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새꿈프로그램’은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 맺은 업무 협약을 계기로 시작돼 올해로 6년차를 맞았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약 6000여명의 학생들이 새꿈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프렌치 오리지널 내한 공연 포스터. /뉴스스

프로그램을 체험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올해에는 브로드웨이 무대를 그대로 가져온 뮤지컬 ‘비틀쥬스’, 라이프매거진의 진수만을 모아 전시했던 ‘라이프 사진전’이 학생들을 만났고, 오는 12월까지 프랑스 오리지널 내한공연 ‘노트르담 드 파리’를 비롯해 연말 온가족에게 사랑받는 ‘유니버설밸레단 호두까기인형’과 합창 ‘헬렌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준비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새꿈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가 적은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체험을 지원해 감수성을 기를 수 있게 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세종문화회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대, ‘타림분지 미라’ 유전적 기원 찾았다

기원집단 유전적 관계 없어
수렵채집인 집단서 유래

서울대학교는 생명과학부 정총원 교수 연구진이 중국 길림대학,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미국 하버드대학 교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4000년 전 살았던 타림 분지 최초 거주민의 유전적 기원을 밝혀냈다고 8일 밝혔다.

타림 분지에서는 건조한 환경에 의해 약 4000년에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미라화돼 발견됐다. 유물과 미라의 생김새를 바탕으로 이들이 약 5000년 전 러시아 초원에서 이주한 목축 집단의 후손이라는 가설이 유력했으나, 본격적인 고유전체 연구가 이뤄지지 못해 이들의 정체는 미궁에 빠져 있었다.

정총원 교수 연구진은 타림 분지 미라 집단에 속한 가장 오래된 유적지



Xiahe 공동묘지 M11번 무덤에서 발굴된 자연적으로 미라화된 여성. /서울대

에서 얻은 13개체의 유전체와 이웃한 준가르 분지에 약 5000년 전 살았던 최초 목축 집단 5개체의 유전체를 분석해 이들의 상반된 기원을 확인했다.

준가르 분지 사람들은 문화적, 유전적으로 모두 러시아 초원에서 이주한 목축 집단과 가까운 관계인 데 비해 타림 분지 미라 집단은 러시아 초원 목축 집단,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농경 집단

등 기존 이주 기원설에서 제시한 기원집단과 유전적 관계가 전혀 없고, 남시베리아부터 타림 분지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거주했던 수렵채집인 집단에서 유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단백질체 분석은 타림 분지 거주민들이 소, 양, 염소젖을 섭취하는 목축 문화를 영위했음을 보여줘 이들이 유전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이웃한 집단의 물질문화 요소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오랫동안 학계의 난제로 남아 있었던 타림 분지 미라 집단의 기원을 밝히고 인구 이동과 물질문화 변화의 대표적인 불일치 사례를 제시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지난달 28일 온라인으로 발표됐다.

/김현정 기자

경희대, 소셜미디어 경영 MBA 과정 신설

12일까지 1기 입학생 모집
싸이월드 창업자 겸임교수 근무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은 소셜미디어(Social Media) 경영 MBA를 신설하고, 1기 입학생 모집에 나섰다.

소셜 미디어 MBA는 소셜미디어 활용 경영과 비즈니스의 역사와 미래를 선도해나갈 전문가를 양성할 준비를 마쳤다.

이경전 교수는 소셜 미디어 MBA와 e-커머스(Commerce) MBA를 포함하고 있는 미디어&커머스 경영학과의 학과장을 맡았다.

또 세계 최초의 소셜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싸이월드의 창업자이자 초대 대표이사인 형용준 대표가 겸임교수로 근무하며, 메타버스(metaverse) 분야의 국내 및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

고 할 수 있는 김상균 연세대 교수(인지과학 박사)가 자문 교수로 활동하기로 했다.

소셜 미디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필수 학문인 사회학으로 박사(고려대)를 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셀럽이자, 많은 방송 경험을 가지신 궁선영 박사가 주임교수로 일한다.

그외에 SNS의 게임화, 메타버스, 스토리텔링 등으로 실천적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권보연 박사(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 박사, 현 플레이어블 컨설팅 대표)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AR/VR(증강/가상현실) 전문가인 이진욱 박사(삼성전자 전무, SeersLab 부사장 역임, ASU 컴퓨터공학박사)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신입생 모집일정은 오는 12일까지이다.

/김현정 기자

경희사이버대
천상현 세프, 교수 위촉

〈前 청와대 전담 요리사〉



경희사이버대학교 외식조리경영학과는 전직 청와대 전담 요리사로 알려진 천상현(사진) 세프를 ‘중식조리실무’ 교수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천상현 교수는 청와대 최초 중식 요리사로 1998년 스카우트 돼 20년간 대통령 다섯명(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식사를 책임졌다.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비롯해 여러 요리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2018년 7월 명예퇴직 이후 현재 중식 레스토랑 ‘광화문 짬뽕’, ‘천상현의 천상’ 대표와 한식진흥원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김현정 기자



지난 3일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융합캠퍼스에서 개최된 인천의 철강산업 발전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한국금속재료연구소 조합 상무, 이성민 현대제철 상무, 최주태 현대제철 전무, 장웅성 인하대 융합혁신기술원장, 조원승 인천과총 회장, 민동준 연세대 교수, 이창선 인하대 첨단소재공정연구소 교수, 현승균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장. /인하대

인하대, ‘인천철강산업발전 포럼’ 개최

탄소중립 실천 방안 모색

인하대학교 뿐리스마트융합특성화 인력양성사업단은 지난 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인천지역연합회와 공동 주관으로 ‘탄소중립시대 인천의 철강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융합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인천과총의 회장을 맡고 있는 조원승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와 김영주 한국금속재료연구소 조합 상무, 인천지역 대표 철강업체인 현대제철 관계자 등 인천지역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포럼에서는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탄소중립의 실천과 함께 철강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미래 대응 전략이 제시됐다.

또한 고탄소 철강산업의 그린디지털 전환을 통한 구조혁신,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의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탄소중립이 달성을 2050년의 시점에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철강소재에 대한 고민, 중소기업과의 플랫폼 사업 연대, 수소환원제철의 상용화를 위한 공정·설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요청,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지역사회와의 공존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김현정 기자

세종대 ‘헬스케어 창작요리 경진대회’ 개최

산삼주 활용 창의적 레시피 구현

세종대학교 LINC+ 사업단은 지난 달 29일 대양AI센터에서 ‘2021 SFM 스마트팜 헬스케어 창작요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LINC+ DAY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과 기업,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事에는 LINC+ 참여학생 중 1차 서류심사를 거친 1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이 창작 요리를 완성한 후 만든 요리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행사에서 SFM 트랙 학생들은 경성대학교로부터 지원받은 산삼주를 활용해 창의적인 레시피를 구현했다.

상은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지난달 29일 열린 ‘2021 SFM 스마트팜 헬스케어 창작요리 경진대회’에서 심사위원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입상 7명에게 주어졌다. 대상은 외식경영학과 서은태 학생이 차지했다. 서은태 학생은 산삼주 리덕션 소스를 곁들인 삼계 룰라드와 한방 리조또를 만들었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닭과 속재료에 대추, 수삼, 산삼주 등을 추가해 먹기 편하면서 맛과 영양이 풍부한 레시피를 선보였다.

/김현정 기자

국민대, 디지털마케팅 전공 개설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학과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다.

국민대 경영대학원은 디지털마케팅 전공을 개설해 오는 11월 16일까지 2022학년도 전기신입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 마케팅 전공은 짧게는 1년 만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정규 경영학석사(MBA) 과정으로, 모든 과정을 토요일 주말 수업으로 진행한다.

본 교육과정은 디지털 분석 도구, 매체를 결합해 목표 고객에 맞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 특성과 취향을 분석, 적절한 온라인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등 고객과의 관계 수립을 위한 전

과정을 구성했다. 전·현직 마케터, 마케팅 데이터 분석가들은 실무형 강의를,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들은 커뮤니케이션, 통계학 등 이론 영역을 맡아 교육한다. 디지털 마케팅 전공의 원서접수는 이달 16일까지 국민대 경영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